

바람을 에너지로 바꾸는 그린기술을 한자리에, 미국 WINDPOWER 2010

전시회 개요

- 개최기간 : 2010. 5. 23 ~ 5. 26
- 개최장소 : 미국 달라스 컨벤션센터
- 전시규모 : 369,000 sqft
- 참가국가 : 22개국
- 참가기업 : 약 1,400개사
- 관람객 : 약 2만 명
- 전시분야 : 풍력 터빈, 블레이드, 부품 업체 및 풍력단지 개발업자 등

WINDPOWER 2010의 주제 'Wind Works'



출처 : 달라스KBC

세계 최대의 풍력에너지 전시회, WINDPOWER 2010

미 풍력에너지협회(AWEA, American Wind Energy Association)가 주최한 WINDPOWER 2010은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에너지 전시회로 지난 5월 23일 달라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Wind Works'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약 1,400개의 세계 풍력에너지 관련업체들이 참가하였으며 4일간 2만 명 이상이 참관하였다. 미 48개 주와 풍력산업의 강국인 독일, 덴마크, 스페인, 중국 등을 포함하여 세계 22개국에서 대거 참가하였다. 동 전시회는 매년 미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여 열리며 내년에는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작년에는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10만 sqft 더 큰 규모로 풋볼경기장 6개 크기의 초대형 전시장에서 열려 세계 최대 풍력에너지 전시회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조지 부시, "풍력에너지로 자동차 엔진을 돌릴 날 올 것"

25일 오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텍사스가 미 풍력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었던 배경으로 그가 주지사로 재직 당시에 수립한 주 정부 차원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기조연설 모습



출처 : AWEA

하여 풍력에너지가 미국의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풍력에너지로 자동차 엔진을 돌릴 날이 머지않다며 산업의 밝은 미래를 전망했다.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 풍력에너지 산업

개최 이틀남인 24일 오전 컨퍼런스에서는 오하이오, 콜로라도, 아이오와 주지사와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그들은 현

풍력에너지 친화적 정책이 큰 몫을 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서 빠른 성장세를 타고 있는 이 산업이 한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RES(Renewable Energy Standard)과 같은 미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진보적 정책수립을 통

재 미 풍력에너지 산업이 정부의 확고하고 실질적인 재생에너지산업 지원정책에 목말라있는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 추세로 계속된다면 세계 최대 풍력에너지 발전국의 명예를 곧 중국에게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North Dakota 대표 미 상원의원 Byron Dorgan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정부의 풍력에너지 지원에 있어서 시기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올해 여름까지 재생에너지 인센티브를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형터빈 제조기업 부스에 수많은 관람객 몰려

세계 풍력에너지 강국으로 손꼽히는 유럽과 북미는 물론 남미, 아시아 국가는 국가관을 마련하여 자국의 풍력에너지 기술을 일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독일은 최고의 풍력에너지 강국답게 50개 이상의 업체를 구성하여 선진 풍력기술을 선보였으며 캐나다(40개 업체), 덴마크(30개), 스페인(25개), 중국(30개), 등 총 8개의 국가관들이 전시장 이곳저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WINDPOWER 2010에는 세계적인 풍력에너지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여 수많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대표적인 외국 기업으로는 100kW 이상의 대형터빈 제조사인 Vestas, GE Energy, Gamesa, REPower USA, 블레이드와 타워 제작 및 운송 전문회사 Broadwind Energy, 대형터빈 제조 및 풍력단지 프로젝트 개발사인 Clipper Windpower, 금융 서비스와 대형터빈 제조업체인 Siemens Energy, 중국 대표 풍력에너지사 United Power(Guangdong Mingyang Wind Power Industry Group)가 참가했다.

GE Energy와 Gamesa, Vestas 등의 세계적인 풍력기업에 수많은 관람객이 몰리는 바람에 바이어들이 전시부스 입구에 마련된 컴퓨터에 등록을 하고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GE Energy(좌)와 Clipper(우)의 전시부스 모습



출처 : 달라스KBC

스페인(상)과 독일(하)의 국가관 모습



출처 : 달라스KBC

22개의 한국 업체들에 외국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

삼성 중공업, 현대 중공업 등 5개의 대기업을 포함하여 총 22개의 한국 업체가 WINDPOWER 2010에 참가하였다. 한국 전시부스에 수많은 외국 바이어들이 둘러 제품을 관심 있게 보았으며 현재 한국에 풍력단지가 몇 개나 있는지, 한국이 풍력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등 한국의 풍력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해 궁금해 하는 외국 바이어들도 여러 명 만날 수 있었다. 다수의 한국 기업이 WINDPOWER 2010에 참가함으로써 한국의 풍력에너지 기술과 제품을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외국 바이어들에게 선보이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전시회가 한국 기업들이 세계 풍력에너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훌륭한 발판이 되었기를 희망해 본다. [K]

유니슨(좌)과 현진(우)의 전시부스 모습



출처 : 달라스KBC